현불 논단

먹거리와 기후위기



민정희
국제종교시민사회
네트워크 사무총장

진화 · 문명사적 관점으로 보면
기후변화 · 전염병이 흐름 바꿔
직립보행 이후 먹거리에 변화
사냥 · 고기도 익혀 먹으며 진화

농경 · 동물의 가축화 시작으로
신성시되던 숲의 가치도 하락
육식은 부의 상징…급속 확대

탐욕적인 축산, 지구위기 주범
지구온난화 가속 페달 멈춰야

지난 2년 동안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국제사회의 이슈와 우리정부의 핵심 정책은 단연 '코로나19 대응정책' 과 '기후위기 대응전략' 이다. 인류의 진화와 문명의 역사에서 기후변화와 동물과의 접촉에 의해 촉발된 전염병은 인류사의 흐름을 바꾸어 왔다.

약 250년 전 기후가 건조해지면서 숲이 줄어들고 초원지역이 확산되자 유인원 중에도 인간과에 속한 선행인류는 열매와 나뭇잎을 먹으면서 나무 위에서 생활하던 방식을 버리고 땅을 딛고 사는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 서서히 직립보행 능력과 달리는 속도가 향상되고 동시에 털이 줄어들면서 민첩성과 지구력이 확보되자 먹거리에 변화가 일어났다. 식물 채집과 함께 맹수들이 사냥한 고기 사체를 얻거나 훔치면서 육식을 시작했고, 불을 이용해 고기를 익혀 먹으면서 먹는 시간이 줄어들고 소화율이 높아졌다.

이 결과로 뇌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신체는 강건한 골격으로 진화하였으며 나뭇잎과 열매 등을 주로 먹던 때보다 최소 5배 이상 식사 시간을 감축하게 되었다. 초원에서 식사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맹수들의 공격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 생존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변화로 시작된 인류의 육식 선택은 진화와 확산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기온이 따뜻해지고 기후가 안정되어 농경이 가능했던 '홀로세' 에 진입하면서 인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택했다. 경작이 가능한 기후 덕분에 숲에 불을 놓거나 벌목을 통해 대규모 농지를 조성하였다. 또한 자연 상태에서 사냥하던 동물을 가축화하면서 숲은 더 이상 성스러운 공간이 아니라 초지 조성과 사료 재배를 위해서는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했다.

인간 진화의 에너지였던 육식은 부의 상징, 지배계급의 권위를 잇는 제사의 희생양으로 변질되었으며, 가축의 대규모 사육은 주변 생태계를 철저하게 파괴하여 대규모 농경, 토목공사와 함께 사막화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이 되었다. 그 결과, 기후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방목과 유목을 유지했던 이슬람 문명권이 거의 예외 없이 사막화되었다.

지금으로부터 2만 년 전인 빙하기 때부터 홀로세가 시작된 이후 산업혁명 이전까지 지구 평균기온은 1만 년에 최대 4℃ 상승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인 1860년 이후의 온도 변화를 보면 불과 100여 년 사이에 1℃가 상승했다. 1만 년 동안의 4℃ 상승은 100년 동안 0.04℃가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산업혁명 후의 1℃ 상승은, 기온이 그 이전에 비해 25배 빠른 속도로 급상승했다는 의미다.

산업혁명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화석연료인 석탄과 함께 공장형 목축은 지구온난화의 가속 페달을 밟아 왔다. 기독교 문명이 미주대륙에 건너간 이후 시작된 탐욕적인 가축사육은 지구 기후위기의 최대 주범 중 하나가 되었다. 붓다가 경험했을 갠지스 대평원의 숲이 사라진 속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순간도 진행 중이다.

환경 파괴로 인더스, 그리스 · 로마, 마야 문명이 붕괴하더라도 그것은 특정 지역의 재앙이었으며, 원래 가축이 앓던 홍역, 폐결핵, 천연두, 백일해 등이 새로운 지역에 전파되어 인구의 50%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도 전 세계로 동시에 확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21년 현재, 코로나는 글로벌 경제 · 문화 시스템과 운송수단으로 전 세계에 하루 안에 확산되고, 기후위기는 특정 지역만 위협하는 차원을 넘어 지구 행성 전체가 파멸할 수 있는 상황이다. 비행기를 포함하여 자동차, 기차, 배 등 전 세계 모든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체의 13.5%인 반면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양은 그보다 33.3% 많은 18%이다.

연기법, 육바라밀 등을 운운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이 수치가 가리키는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가?

社 說

불자 디지털공동체 구축을

창립 66주년을 맞은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전국의 흩어진 신도들을 하나로 모으는 디지털 정보화 사업을 본격화했다. 6월 24일 기업IT메신저 개발업체인 비드테크와 시스템 구축 협약을 맺은 것이다. 신도들의 정보를 하나로 모아 웹과 앱 등에서 열람이 가능하게 하고, 신도 멤버십을 디지털화 해 결제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상부상조하는 불자 네트워크다. 중앙신도회는 디지털 신도증을 통해 멤버십을 확대하고, 불자기업에서 불자들이 결재시 할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불자들이 불자기업을 활용하면, 기업 측에서는 고객이 확보되며, 불자들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구인구직활동에 도움을 주는 인적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체끼리도 도울 수 있는 경제공동체가 구축된다.

이에 대해 신도조직들에서는 기대를 표하고 있다. 그동안 불자들은 이웃종교에 비해 상부상조하는 조직화가 부족했다. 그로 인하여 오히려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아왔다. 개신교인이 하는 식당에 불자들은 자연스럽게 드나들지만, 불자들이 하는 식당에는 개신교인들이 오지 않고, 같은 개신교인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예다.

그런 측면에서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과 멤버십 확대는 시대 변화 속에 포교의 또 다른 방편으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다. 부처님은 재세시 인도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하나의 사상적 중심이 되었다. 고대인도사회의 신흥기업가들은 보다 자유로운 불교사상에 힘입어 그들만의 경제공동체를 구성했다. 중앙신도회의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을 발판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길 기대한다.

동국대 전산원 명칭 변경 시급하다

동국대 전산원의 기관 명칭 변경이 추진된다는 소식이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인 동국대 전산원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1975년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6월 22일 열린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에서 보고되며 알려졌다. 당시 보고자로 나선 손재현 동국대 전산원장은 "숭실대, 한양대, 강원대 등은 이미 학점은행제 기관의 명칭을 변경해 많은 신입생을 유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동국대 전산원 관계자들은 오래된 명칭으로 인해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일선 고등학교에 동국대 전산원을 홍보하기 위해 찾아가면 진학지도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 단순 전산학원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동국대 전산원은 컴퓨터 공학부터 멀티미디어학, 영화학, 광고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전공들이 있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이지만, 기관명으로 인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게 된 것이다.

동국대 전산원은 전문 기관의 의뢰를 통해 6개의 새 명칭을 제안 받았고, 학생과 교직원 의견 수렴 결과 '동국대 핵심역량교육원' 이라는 의미를 가진 '동국대 DUICA(듀이카)' 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차기 이사회에서 명칭 변경이 최종 결정되면 전산원은 일선 고등학교 홍보와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앞으로 대학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학 내 기관들도 변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동국대 전산원의 명칭 변경은 변화를 위한 자구책 중 하나다. 1970년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시작해 이젠 국민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한 동국대 전산원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묘법연화경'으로 사는 것은

코로나19시대를 맞아 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산지가 어느덧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되었다. 감염인을 위한 한국범종교단체의 회장이라는 소임을 맡음과 동시에 코로나 19를 맞닥뜨리게 되니 난감하기 그지없었다. 모든 활동을 멈추라는 사회의 요청 속에서도 움직여야하는 우리의 과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감염인들을 위한 요양원 · 요양병원 시설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감염인들의 사회적 낙인과 방치의 현실' 은 계속되고 있기에 어떻게 이 실타래를 풀어야 할 것인가가 가장 큰 화두였다.

'유관기관 간담회' 를 개최하기로 하고 기관들의 실무자를 초대하니 15명 정도의 소수의 인원이 거리두기를 하고 모일 수 있게 되었다. 각 기관들은 자신들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돌봄과 소통을 위한 노력들에 대해 함께 공유하였다.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이 난제를 나누었다.

요양원장 교무님은 의료진들이 감염인들에 대한 의료적 지식의 부재와 편견을 가장 큰 문제로 얘기하였고, 감염인들 모임의 대표는 사회적 낙인과 감염인 스스로 자신에 대한 낙인이 '좌절' 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그림 · 최주현

활동가인 선생님은 감염인들이 입원해 있는 요양원이나 거절하는 요양원 모두 '낙인' 의 같은 관점임을 지적하였다. 병원의 한 간호사는 얼마 전 상담한 한 젊은 감염인의 고통을 예로 들었는데, 함께 밥을 먹던 어머니가 아들이 먹던 컵의 물을 잘못 알고 먹다가 급하게 물을 뱉어버리는 모습을 감염인 아들이 지켜보며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그 말에 아무런 얘기도 할 수 없었다.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는….' '나는 과연 〈반야심경〉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넘쳐나는 요양원과 요양시설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감염인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편견의 벽으로 아픈 몸을 편히 누일 곳이 없는 것이 감염인들의 현실이다.

새벽예불 후 〈법화경〉 '약왕보살본사품' 을 읽을 때 한 큰스님이 하셨던 질문이 떠올랐다. "무엇이 〈묘법연화경〉이냐? 〈법화경〉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고 〈묘법연화경〉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꽉 막히게 하셨던 그 질문의 본질이 이제야 느껴진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때,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때, 그때를 '묘법' 이라 하는 것은 아닐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5~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